

황동혁 감독, ‘오징어게임 시즌2’ 제작 공식 선언

현재 구상 단계...공개 시기 미정
1편 이어 이정재가 이야기의 중심
프린트맨 딱지맨의 과거 등 관심



‘오징어게임’으로 전 세계적 시선을 모은 연출자 황동혁 감독이 시즌2 제작 의지를 밝혔다. 시즌1의 주역 이정재와 함께 ‘프린트맨’으로 활약한 이병헌이 시즌2에서 새롭게 대결 구도를 그릴지 주목된다. (왼쪽 사진부터)

“456번! 허튼 생각하지 마! 비행기를 타. 그제 당신에게 좋을 거야!”

말을 만나러 가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휴대전화 저편에서 늙은이 목소리가 들린다. 이미 극한의 생존경쟁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어 이를 즐기듯 지켜본 놈을 용서할 수 없다. 비장한 표정으로 발길을 되돌린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마지막 장면이다. 목숨을 내건 게임에서 우승해 456억원의 거금을 손에 쥐었지만, 결국 잔혹한 게임판 위에 놓인 한 마리 ‘말(馬)’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456번’ 참가자 기훈(이정재), 자신을 비롯해 모두 456명의 ‘말’을 통제하며 조종한 ‘프린트맨’(이병헌)과 통화한 끝에 무언가 굳은 결심을 하는 모습이다. 자신을 게임 속으로 몰아간 ‘딱지맨’(공유)을 발견하고 뒤쫓는 장면이 그에 앞섰다. 기훈은 ‘프린트맨’과 ‘딱지맨’ 등 생존 게임의 운영자들을 향해 복수의 선언을 한 것일까.

●황동혁 감독 “시즌2 제작...현재 구상 단계”
9월29일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

190개 지역에서 공개된 이후 신드롬급 인기와 동시에 시즌2 제작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키워왔다. 시즌1의 마지막 장면이 남긴 뚜렷한 여운과 이후 이야기에 대한 암시도 시즌2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강력히 점치게 했다.

연출자 황동혁 감독이 결국 시즌2 제작을 ‘공식화’했다. 10일 AP통신은 황동혁 감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소식

을 전했다. ‘오징어게임’ 프로모션차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머물고 있는 황 감독은 인터뷰에서 “(제작)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시즌2 제작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어 “현재 구상 단계”라면서 “(시즌2)언제, 어떻게 나올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건 약속하겠다”면서

“기훈이 돌아와 세상을 위해 뭔가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정재가 시즌1 이어 시즌2의 이야기를 이끌 것이라는 얘기다. 시즌1의 여운과 암시에 비해 ‘프린트맨’과 ‘딱지맨’의 등장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정재+이병헌+공유+...?

이와 관련해 황 감독은 10월 미국 CNN 인터뷰에서 “프린트맨의 과거 등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유의 ‘딱지맨’ 캐릭터도 “시즌1에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이야기를 펼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시즌1의 마지막 장면과 황동혁 감독의 언급 등을 유추한다면 시즌2에서는 주인공 이정재는 물론 ‘프린트맨’ 이병헌과 ‘딱지맨’ 공유 등이 큰 비중으로 활약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정재는 ‘오징어게임’으로 이제 글로벌시장에 확실히 각인된 한류스타로 떠올랐다. 이병헌은 이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지.아이.조’ 시리즈 등으로 세계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공유도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류의 인기를 주도해온 스타로 꼽힌다. ‘오징어게임’ 시즌1의 전 세계적인 관심에 이어 이들 탑스타급 연기자들이 힘을 모은다면 시즌2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울 것으로 보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임창정 코로나 확진...동선 겹친 연예인들 긴장



임창정

가수 임창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연예계 안팎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임창정은 9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인 8일 연기자 이지훈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불렀다. 이에 결혼식 참석자들도 관련 검사를 받았다. 10일 오후 현재까지 이지훈과 아내, 하객으로 참석한 뮤지컬 배우 손준호, 방송인 홍석천, 연기자 정태우 등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가수 아이유와 그룹 엑소의 카이 등도 이날 일정을 취소하고 관련 검사를 받았다. 최근 정구 17집 ‘별거 없던 그 하루’를 내고 방송 활동에 나선 임창정은 확진 판정 직후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CGV, ‘스우파’ 오프라인 콘서트 생중계



스트릿 우먼 파이터

무대 위 스타급 댄서들의 화려한 몸짓을 스크린으로도 볼 수 있게 됐다. CJ CGV가 웹툰 출 경연프로 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출연자들이 나서는 오프라인 콘서트를 생중계한다. 10일 CGV는 “11월21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온 더 스테이지’를 극장에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공연에서는 코카N버터·YGX·라치카·프리우드·만·혹·웨이비·윈트·홀리뱅 등 방송에 출연한 8개팀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지훈 1인 기획사 미등록 회사로 밝혀져



이지훈

최근 ‘갑질 논란’에 휘말린 연기자 이지훈의 ‘1인 기획사’가 미등록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훈이 올해 6월 세운 썸 엔터테인먼트,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이지훈 측은 관련 등록을 위한 서류를 구비해놓았지만 일정이 많아 등록을 미룬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지훈은 최근 IHQ 드라마 ‘스폰서’와 관련해 ‘갑질 의혹’을 받아왔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BTS DVD, 일본레코드협회서 골드 인증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콘서트 DVD ‘BTS 뎀 오브 더 솔 월드(BTS MAP OF THE SOUL ON:THE)’로 일본레코드협회로부터 ‘골드’(10만장 이상)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월드 투어-러브 유어셀프 재팬 에디션’(2019) 등 총 5개의 콘서트 실황 DVD로 ‘골드’ 인증을 받게 됐다. 그룹 세븐틴도 미니 9집 ‘아타카(Attacca)’로 ‘플래티넘’(25만장 이상)을, 엔하이픈은 정규 1집 ‘디멘션:딜레마’(DIMENSION:DILEMMA)로 ‘골드’ 인증을 받았다.

장윤정 스카이어엔엠과 전속계약



장윤정

가수 장윤정이 남편 도경완과 일로도 한 솔밭을 먹게 됐다. 10일 매니저먼트사 스카이어엔엠은 “장윤정이 2014년부터 함께한 매니저와 의리로 당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는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도경완이 소속되어 있다. 장윤정과 도경완은 2013년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도경완이 올해 2월 KBS에서 퇴사하기 직전까지 KBS 2TV ‘노래가 좋아’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장윤정은 이후 김선근 아나운서와 ‘노래가 좋아’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국, 도핑검사로 로이더 논란 정면돌파



‘근육질 몸매’ 김종국이 ‘약물 근육’ 의혹에 맞서 세계 도핑방지기구의 규정을 기준으로 391가지 검사를 받았다고 자칭했다. 사진출처 | 김종국 SNS

약물로 근육을 키우는 ‘로이더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린 가수 김종국이 도핑검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기준 391가지 검사를 모두 진행해 자신이 운동을 통해 근육질 몸매를 만들어왔음을 입증하겠다는 ‘결연함’이다. 그가 의혹에 연일 적극 대응하고 해명하는 과정은 ‘연예인의 몸=이미지’라는 스타의 속명을 드러내는 사례라는 시각이 나온다.

김종국은 최근 캐나다의 웰스텔레비니언이자 유명 유튜버 그렉 듀셋으로부터 ‘약물을 복용해 근육을 키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렉 듀셋은 “100만 달러를 건다거나 누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그가 내주릴인지 묻는다면 로이더라고 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0일에는 또 다른 헬스 유튜버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서 “하지만 한국에서 김종국이 워낙 이미지가 좋아 솔직하게 대답 못하겠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김종국은 도핑검사로 사태를 정면돌파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7년을 대중가수, 연예인으로 살았다. 변변찮은 이 몸으로 내 채널을 오픈하게 된 것도 오롯이 성실함과 건강을 기본으로 하는 운동, 삶을 나누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라며 지속적인 운동과 웨이트트레이닝으로 현재의 몸상태를 갖게 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당당함을 밝히기 위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도핑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전문 운동선수가 아니고선 일반인의 개인적 요청에 따라 예외적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이

헬스 유튜버들 약물 의혹 제기에도핑검사 과정 유튜브 공개 선언

에 그는 WADA의 규정을 기준 삼아 스스로 도핑검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과정 역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이 연예인의 몸이 대중에게 비치는 이미지로서 작지 않은 의미와 상징임을 말해주는 시간이 나온다. 최영균 대중문화 평론가는 10일 “연예인은 ‘몸’을 통해 대중과 가장 직관적으로 만난다”면서 “대중은 그들의 ‘몸’이 자연스럽게 진실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김종국 스스로 “약물이 합법이라도 몸서리치는 저로서는 잘못이 맞다”면서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하면 여기서는 큰 잘못이다”고 밝힌 것도 최 평론가의 분석처럼 대중이 연예인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신인 걸그룹 탄생’ 줄 잇는다

미스틱의 6인조 빌리 활동 시작
스타쉽 6인조 아이브 12월 첫선
오디션 우승 케플러도 데뷔 준비
JYP, 내년 2월 새 걸그룹 공개

겨울 시즌, 가요계가 신인 걸그룹의 ‘전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신인 걸그룹이 줄줄이 데뷔해 ‘4세대 아이돌 대전’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되면서 각 데뷔 시기에 맞춰 팬미팅 등 오프라인 무대를 열며 글로벌 영역까지 확대한다.

스타트는 6인조 빌리(Billie)가 끊었다. 10일 첫 번째 미니앨범 ‘더 빌리지 오브 퍼셉션:chapter one’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빌리는 가수 윤종선이 대표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미스틱스토리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 전부터 ‘윤종신표 걸그룹’으로 화제를 모았다. 또 히트곡 메이커인 이민수 작곡가와 김이나 작사가가 의기투합해 타이틀곡 ‘링 바이 링’을 만들었다. 미스틱스토리는 “첫 번째 케이(K)팝 프로젝트로, 독창적인 아티스트 인큐베이션 시스템을 통해 제작한 글로벌 아이돌 그룹”이라고 강조했다.

뒤를 이어 6인조 아이브(IVE)가 나선다. 10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브는 다음 달 1일 데뷔 앨범을 발표하고 국내외 팬들에 선보인다. 스타쉽이 걸그룹 우주소녀 이후 5년 만에 내놓는 아이브는 ‘아이 해브(I HAVE)’의 줄임말로, 성장형 그룹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능력을 갖춘 완성형 그룹을 뜻한다.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즈원의 센터로 활약했던 장원영, 안유진 등을 포함해 가을, 리즈, 레이, 이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디션프로그램 ‘걸스플래닛999’에서 우승한 프로젝트그룹 케플러. 사진제공 | 웨이코엔·스웁엔터테인먼트 제공

최근 종영한 오디션프로그램 ‘걸스플래닛999’에서 우승을 차지한 프로젝트그룹 케플러(Kep1er)도 데뷔를 앞두고 있다. 김채현, 휴닝바히에, 최유진, 김다연, 서영은, 강예서, 예지키 히카루, 사카모토 마사로, 선샤오딩 등 9명은 앞으로 2년 6개월간 활동하며 국내외 영역을 넓혀나간다. 최근 막바지 데뷔 앨범 준비에 돌입했다. 원더걸스, 미쓰에이, 트와이스, 있지 등

‘걸그룹 명가’로 꼽히는 JYP엔터테인먼트도 내년 2월 걸그룹을 선보인다. 2019년 데뷔한 있지 이후 3년 만으로, 벌써부터 해외의 관심을 얻고 있다. 그룹명과 멤버 등 어떤 정보도 알려진 것이 없지만, 최근 데뷔 앨범을 ‘블라인드 패키지’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전 예약 판매해 6만1667장을 팔아치웠다. ‘JYP 신인 걸그룹’의 힘이라고 가요계는 보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